

公州 柿木洞古墳 調查略報

安 承 周

一、調査經緯

이번 公州郡 長岐面 柿木洞 뒷산에 있는 古墳 二基를 調査케된 直接 動機는 지난 十月初에 公州師大 新築敷地 整地 工事中에 土器 一點이 出土되어 現場 責任者로부터 連絡을 받고 筆者가 現場에 가서 土器를 鑑定한 結果 百濟時代의 丸底壺로 確認하고 遺物을 引受하였다. 이것이 契機가 되어 周圍 地域에 對한 關心을 갖고 柿木洞 一帶를 踏査하던 中部 落東便을 둘러싼 低丘陵의 南端 開墾地에서 土器片 數點을 發見하였고 地主 李奉男氏를 만나 意外로 開墾 當時에 出土된 二點의 土器를 보게 되었다. 工事場에서 出土된 것과 같은 百濟時代의 特徵을 나타낸 丸底 大壺였다. 當時에 連絡을 받지 못한 안타가움을 吐露하자 李氏는 마을 뒷산에 日帝때 盜掘된 古墳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丘陵에 올라 南向한 傾斜面에 石槨이 露出된 것을 發見하고 破壞된 곳으로 内部의 北側壁과 天井을 볼 수 있어 古墳 架構樣式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住民들은 바로 위에 이와 같은 古墳이 또 있었는데 六·二五動亂時에는 住民들의 待避壕로 使用되었다고 하며 其後에 山主에 依하여 石槨을 埋沒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古墳 研究上 極히 重要함을 豫見하고 公州와 扶餘의 博物館 分館長에 連絡하여 調査키로 合意하고 지난 十月 十六日에 二基를 完全히 調査하였다. 便宜上 二基 古墳中 丘陵中腹에 位置한 古墳을 一號、丘陵南端에 位置한 古墳을 二號로 命名 使用하기로 한다. 이 古墳 調査에 參加한 사람은 文炳憲 朴秉國(公州師大教授) 李永樂(公州博物館 分館長) 金永培(扶餘分館長) 朴容鎮(公州敎大教授) 朴仁采(公州博物館 員) 安承周(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 幹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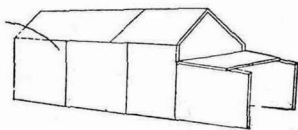
二、古墳의 構造(一號墳)

本古墳은 外形上으로는 殘存部分이 全히 없어서 住民들의 말을 들어 埋沒하였다는 곳을 東西로 約四m 幅을 一m 로 하여 Trench를 甞았으나 石槨이 檢出되지 않아 一號 Trench의 中央에서 北쪽으로 幅 一m의 T字形 Trench를 連續시켜 作業을 進行하던 중 北으로 約三m 지점에서 石室의 羨道入口가 檢出되었다.

玄室의 크기는 南北이 二·七三m 東西가 一·二五m의 長方形을 이루고 있다. 羨道는 玄室 南側壁 中央에 設置되어 있고 玄室高는 床面에서 頂點까지 一·五m이다. 좀더 構造의 細部の인 面을 記述해 본다면 床面은 모두 整齊된 花崗石 三枚의 大板石을 一列로 配列하여 床面을 이루었다. 玄室의 壁은 東側壁이 弱質花崗石을 整齊한 二枚의 板石으로 構成되어 있고 西側壁도 整齊된 三枚의 板石으로 構成되었다. 北側壁은 一枚의 上尖五角形인 大板石으로 構成되었는데 板石의 크기는 幅이 一·二五m이며 高는 東西側壁과 相接하여 連續되는 點까지 一·〇九m이고 床面에서 上尖五角形 尖端까지 一·五m이다. 南側壁은 東西로 玄室入口에 側石을 세우고 밑에는 중앙石을 끼였으며 위에는 眉石을 兼한 天井架構石으로 形成하고 入口는 一枚의 板石으로서 閉鎖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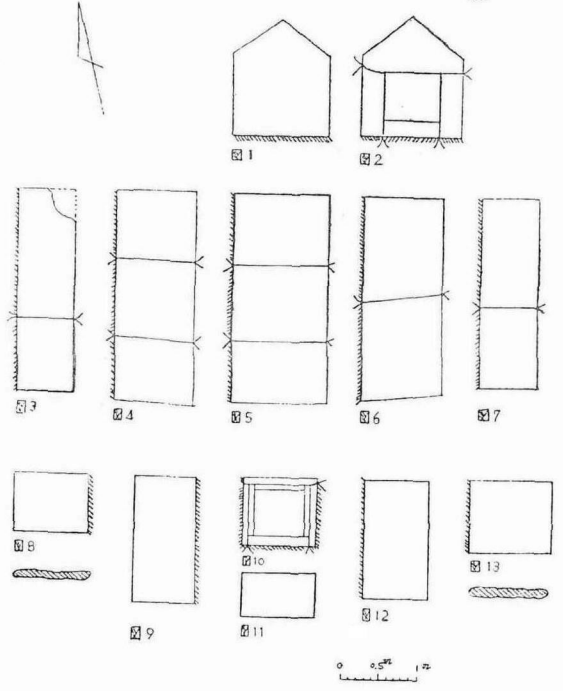
天井은 四枚의 板石으로 組立되었는데 東西兩側壁의 上端에서 內傾하여 頂點을 合한 所謂 合掌式 天井을 이루었다. 天井 北側에서 直徑이 〇·三三m 정도의 부채꼴로 天井石이 破壞되어 있어 盜掘者에 依한 所行인 듯하다.

羨道는 玄室 入口로부터 東西兩側에 大板石으로 側壁을 이루고 天井은 一枚의 板石으로 덮였으며 바닥은 玄室 入口에서 〇·五六m 지점까지 一枚의 板石으로 床石을 이루고 羨道入口는 閉鎖되었던 痕跡을 찾아 볼 수 없어 閉鎖石은 形成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柿木洞 一號墳 立面圖

突窓圖
S = 1/50



三、古墳構造의 實測圖

- 圖1 玄室 北側壁(幅一·二五m 高一·五m)
- 圖2 內部南側壁及玄室入口
- 圖3 西側天井石(北側石長一·七四m 幅〇·七七m 南側石長〇·九九m 幅〇·七七m)
- 圖4 西側壁(北側石底邊長〇·九五m 上邊長〇·九m 高一·〇九m 中央石長一m 高一·〇九m 南側石長〇·八二m 高는 前二枚斗同)
- 圖5 玄室床面(北側石長〇·九五m 幅一·二五m 中央石長一·〇一m 幅南側壁斗同 南側石長〇·七七m 幅前二枚斗同)
- 圖6 東側壁(北側石底邊長一·四m 上邊長一·三三m 高一·〇九m 南側石底邊長一·三三三m 上邊長一·三三二m 高一·〇九m)
- 圖7 東側天井石(北側石長一·四九m 幅〇·七七m 南側石長一·一三三m 幅〇·七七m)

第八卷 第一號 通卷七十八號

圖8 門扉石及門扉斷面(門扉石底邊長一m 上邊長〇·九七m 門扉斷面〇·〇七m)

圖9 美道西側壁(長一·六五m 高〇·八四m)

圖10 玄室口外面

圖11 美道底石平面(長〇·五六m 幅一·〇六m)

圖12 美道東側壁(長一·六m 高〇·八八m)

圖13 美道蓋石及斷面(蓋石長一m 幅一m 斷面〇·〇九m)

四、結 語

今般 柿木洞 盜掘古墳 整理 調査에 있어서 遺物의 發見은 徹底한 盜掘로 因하여 副葬品의 破片조차 發見치 못하고 遺存構造만을 調査케 됨은 本調査團員들이 哀惜하게 여기는 바이다. 公州를 中心하여 이미 調査報告된 百濟時代 古墳樣式이 많이 있었으나 이번 整理 調査한 所謂合掌式天井石室古墳은 過去에 公州 校洞에서 一基가 調査報告되었으나(昭和二年度 古墳調査報告二册二四頁 公州錦町一號墳) 이미 오래전에 破壞湮滅되어 지금은 形跡을 찾을 길이 없는데 多幸히도 이번 整理 調査된 柿木洞 古墳은 거의 原形을 具存한 것으로서 百濟古墳樣式을 研究하는데 重要な 資料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學術 研究上 산 資料를 放置할 수는 없으므로 永久保存할 수 있도록 對策을 하도록 講究하여야 될 것임을 切實히 느끼는 바이다.

끝으로 本調査에 積極 協助하여 주신 公州博物館 李永樂 館長 扶餘博物館 金永培 館長 公州教育大學 朴容鎮 教授 公州博物館 朴仁和 先生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資 料

天興·香城 兩寺址 石塔의 舍利孔

金 周 泰

昨年末에 解體復元된 高麗 및 羅末의 表題 兩塔에서 各各 舍利孔이 發